



[산업] 최태원 SK회장 “지성 쌓아 사회환원 변화 선도를” 08



Life

[라이프] ‘동행세일’ 막판스퍼트 주말 유통가 ‘큰 장’ 선다



# 서울시, 2.6조 투입 ‘그린뉴딜’... 경제·기후 위기 극복한다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친환경 정책으로 2.6만개 일자리 창출 5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서울, 탄소배출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시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만 단행 등을 제한한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화석문명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시대



박원순 시장이 8일 오전 시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의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쳐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관용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2035년부터는 친환경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 나아가 30년 뒤인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을 확충, 처리 용량을 늘리고 25개 전 자치구에 ‘리엔업사이클플라자’를 설치한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곳(시설규모 500t/일)을 더 만들고 기존 4

개쓰레기소각장(강남·노원·마포·양천)에서 하루 약 580t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량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엔 인센티브를, 초과 배출한 건물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밖에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85만㎡ 규모의 도시 숲을 신규로 조성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분별한 생태환경 파괴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라는 비극은 전 인류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음압구급차 2대 추가배치... 신속 대응

서울시내 동서남북 4개 권역 1대씩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간 단축 가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압구급차 2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음압구급차는 내부를 음압 상태로 만들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진 구급차로, 강동·구로·동대문·서대문소방서에 배치됐다. 이로써 서울시내 동서남북 4개 권역에서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게 됐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가 배치된 음압구급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음압구급차가 있으면 감염병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신고에 일반구급차가 동원될 경우 귀소 후 구

급차를 소독해야 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119대원의 현장 활동에 걸리는 시간은 구급출동에서 처리완료까지 1건당 평균 42분(작년 기준)이다. 코로나19의 심 출동 시 소요되는 시간은 58분으로 평소보다 16분 더 길며 차량을 소독하는데 1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건수는 6월 1주차 102명에서 2주차 85명, 3주차 66명, 4주차 74명, 이달 1주차 5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확진자 수는 10명, 34명, 43명, 20명, 1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 1800억 규모 추가발행

13일부터 7~10% 할인 판매

서울시는 긴급 편성한 3차 추경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8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7~10% 할인된 금액으로 12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할인율은 7%이며, 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강남구 등 7개 구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10% 특별 할

인을 해준다.

시는 상품권 추가 발행 개시일에 해당 앱 동시접속자 수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일정을 분리하고 운영 서버를 확장했다.

이전에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0~15% 할인 판매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조기 완판됐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계속 늘어 지난 4개월 사이 신규 가맹점이 7만3000여개 늘었다. 7월 현재 24만9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언택트관광지 100선 선정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뽑혔다.

‘언택트 관광지 100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 여행 및 가족단위 테마 관광지, 야외 관광지, 자체 입장객 수 제한을 통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등의 기준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서울의 한강에서는 볼 수 없는 한강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친수공간(빨랫돌 머리)’,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한 철책이 시작됐던 지점인 ‘군 초소 포토존’ 등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 한산한 인천공항, 안내·경고방송만 ‘시끌’

경고대상 없는 방송 여전... 소음공해

지난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발길을 끊은 출국장은 한산했다. 사람도 차도 거의 볼 수 없는 출국장 커브사이드에는 1분이 멀다하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CCTV 단속중입니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대행 이용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제2여객터미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적한 커브사이드에 적막을 깨고 경고방송은 오히려 1터미널보다 더 크게 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에서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공항이용객은 지난해 일평균 약

19만명에서 일일 7200명 수준으로 96%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이후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인천공항주차협조조합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았고 종사하던 사람들도 다른 일을 찾아 공항을 떠난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은 이런데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안내 경고방송은 6개월째 그대로다. 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공항근무자는 “주차하는 사람이나 불법주차대행을 하는 사람 등 경고의 대상이 없는데 경고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교통서비스팀 담당자는 “지안내방송의 운영에 간격을 늘리거나 방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창근 기자 mirex@

오늘의 날씨

7월 9일 (목) 음력 : 5월 19일

수도권 날씨 33~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2, 동두천 19/32, 가평 20/32, 파주 19/32, 서울 21/33, 양평 20/32, 인천 21/29, 수원 21/32, 용인 21/31, 평택 20/32

해돋이 05:19 | 해질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